

서울아산병원 '바이오 코어설비 구축사업' 선정

양민후 기자 | 승인 2021.10.13 09:59

협업할 바이오벤처 5곳 결정..성장 생태계 조성 계획



왼쪽부터 서울아산병원 조유숙 의생명연구소장,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 이승주 담당교수, 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용길 소장, 서울아산병원 반준우 임상의학연구소장, 울산의대 의생명과학교실 장은주 교수가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.

[메디칼업저버 양민후 기자] 서울아산병원은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'바이오 코어설비(Core Facility) 구축사업'에 선정됐다고 밝혔다.

바이오 코어설비 구축사업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원천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벤처기업에 기술·장비·시설, 컨설팅 및 교육·멘토링 등을 지원하는 국책사업이다.

서울아산병원은 협업할 바이오 벤처기업 5곳을 선정했으며 2027년까지 101억여 원을 지원받아 신생 바이오 벤처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.

병원 측은 의료현장 기반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이뤄내겠다는 포부를 담아 이번 사업의 이름을 CHOICE(Center for Hospital-based Open Innovation Core Facility supporting Bio-Startup)로 지었다.

CHOICE에 선정된 벤처기업은 ▲펠레메드(항암제 개발) ▲트라이얼인포매틱스(비임상-임상 데이터 통합 관리) ▲유씨아이테라퓨틱스(유전자 조작 세포치료제 개발) ▲넥스아이(면역항암제 개발) ▲온코닉테라퓨틱스(역류성식도염 치료제 및 항암제 개발) 등 5곳이다.

서울아산병원은 2022년부터 3년간 이들 기업에 ▲병원 기반 코어랩 서비스 ▲임상 자원 및 전문적인 의료 자문 ▲전임상 유효성 평가 서비스 ▲글로벌 기준 표준화, 품질관리 ▲글로벌 규제 기관 기준의 전자 노트 데이터 관리 서비스 ▲투자 유치를 위한 교류 및 특허, 기술 분석 ▲1:1 자문 및 교육 프로그램 등 수요 맞춤형 서비스 ▲공용 오피스, 실험공간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.

서울아산병원 융합연구지원센터 김용길 소장(류마티스내과 교수)은 "CHOICE의 목적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혁신적 바이오 연구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"이라며 "CHOICE 참여 벤처기업에 전문화된 코어랩 서비스 등 연구 인프라를 지원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다"고 말했다.



양민후 기자 mhyang@monews.co.kr